

LUX HUMANITAS

VOL.13. 2012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SPECIAL REPORT

- 02 2013년을 향한 힘찬 출발 Magnolia 2012
- 03 학문과 평화의 담대한 비상
- 04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미래대학의 길
- 06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본격 착수
- 07 경희의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 08 목련예술제와 함께하는 2012 송년의 밤

FOCUS

- 09 서울 중앙도서관 신축사업
- 10 "문명의 본질은 충돌 아닌 소통과 교류"
- 11 이익과 가치,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 12 '한의학 선구자' 청강 김영훈 선생 유품 기부
- 13 공학관 학생식당 리모델링
- 14 경희의 희망나눔 토크 '암을 넘어선 삶'
- 15 2012 경희 스포츠의 약진

TODAY

- 16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성과, 3년 연속 '우수'
- 17 BK21 종합평가 16개 사업 '우수' 등급
- 18 '경희가족' 정신으로 이뤄낸 노사 화합
- 19 소중한 뜻과 정성 담긴 나눔문화
- 20 경희의 연구 성과, 세계적 학술지 게재

PEOPLE

- 21 경희 인물 동정

NEWS

- 22 경희 단신

Lux HUMANITAS 룩스 후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애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경희의 창학이념을 상징합니다.



9 772005 761002
ISSN 2005-716X

18

KYUNG HEE UNIVERSITY

2013년을 향한 힘찬 출발 Magnolia 2012

2012년 한 해를 보내며 경희 구성원은 미래를 위한 더 큰 각오를 다졌다. 지난 2월 18일,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스승'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를 영원히 떠나보냈다. 고인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경희는 더욱 강한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교육·연구·실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뤘다. 특히, 국내 최초로 우주공간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경희의 연구가 올해 거둔 큰 수확이다. 대학원 WCU우주탐사학과 이동훈 교수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4회 목련상 연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희는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으며, 지구적 공헌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경희 지구사회봉사단(GSC)의 몽골봉사단은 몽골 대통령 훈장을 수훈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1년 여의 노력 끝에 경희의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을 발표하게 된 것도 올해의 큰 진전이다.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는 지난 1964년, 개교 15주년을 맞아 50주년, 100주년에 보내는 '미래 메시지'를 유산으로 남겼다. 경희가족 송년회 'Magnolia 2012'에서 공개하는 그 문서에는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를 만들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경희는 2013년을 향해 더욱 담대한 도전, 힘찬 출발을 시작한다.



학문과 평화의 담대한 비상

Magnolia 2012,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원대한 미래비전 창조적으로 계승
조인원 총장, “세계적인 경희’ 화두를 더 깊이 새기는 한 해로 마무리하자”



경희가족 송년회 Magnolia 2012 주제는 ‘학문과 평화의 담대한 비상’이다. 사진은 매년 행사가 개최되는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Magnolia 2012는 경희 구성원이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는 송년 모임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아, ‘학문과 평화의 담대한 비상’이라는 주제 아래 1부 목련회의, 2부 목련예술제를 진행한다.

주제 선정 과정에서, 경희는 지난 2월 18일 영면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원대한 미래비전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더욱 담대한 꿈과 희망을 성취하겠다는 도전정신을 함축하고자 했다. 조인원 총장은 11월 26일 제8차 합동교무위원회 인사말에서 “올해 목련회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1964년 설립자께서 남기신 ‘개교 50주년,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 원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2012년은 세계적 명문, 세계적 경희로 도약하는 전환점

본래 취지에 따르면, 개교 50주년을 위한 메시지는 10여 년 전 이미 공개돼야 했다. 그러나 당시는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생존할 때여서 발표를 미뤘다. 개교 100주년을 위한 메시지의 경우, 경희가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지침이 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조영식 박사의 개교 50주년, 100주년 ‘미래 메시지’에 담긴

두 가지 화두는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였다. 경희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 속에는 ‘학문과 인류’라는 개념이 담겨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추구하며 세계적인 명문의 조건,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경희의 미래비전은 이미 50여 년 전에 기본 구상이 마련돼 있던 것이다.

Magnolia 2012 개최를 앞두고, 조인원 총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추구해왔던 ‘세계적인 경희’라는 화두를 더 깊이 새기는 한 해로 마무리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실제로, 올 연말은 도약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구성원 모두의 숙원사업인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착공된다. 경희는 그동안 교육·연구 공간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어려움이 희망으로 바뀐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의 노력 끝에 경희의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이 발표된다. 미래전략은 개교 70주년을 계기로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발전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다.

올해 목련회의에는 개교 15주년인 1964년에 재학 중이었던 동문들이 특별 초청된다. Magnolia 2012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경희 구성원 모두의 상상력, 창조성, 도전정신이 응축된 송년 축제이다.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미래대학의 길

2012 경희, 교육·연구·실천 전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 이뤄
 목련상 수상 이동훈 교수, 우주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공



‘학문의 평화’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모색해온 경희는 2013년에도 미래대학의 길을 힘차게 열어갈 계획이다.

경희대학교는 올해 교육·연구·실천의 전 영역에서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지난 1년간 경희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으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창조적 여정에 도전해왔다.

2012년 경희가 이룩한 성취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연구 역량의 비약적 성장이다. 최근 5년간의 국내외 대학평가 결과, 경희가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대학임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다. 국내 종합대학 5위권을 유지하고, 아시아대학 40위권, 세계대학 200위권 진입을 이끈 것은 연구 부문이었다. 최고 권위의 학술지들도 경희를 주목했다.

연구 역량 강화 위해 ‘학술진흥 2020’ 수립·추진

경희의 연구 성과는 Magnolia 2012 목련상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목련상은 지난 1년간 경희가 이룩한 성과를 돌아보며,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해 공헌한 구성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교육·연구·실천 세 부문에서 구성원 모두가 존경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연구 부문에서 대학원 우주탐사학과 이동훈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동훈 교수는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지구 근접 우주공간 탐사

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1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우주과학과 신설 초기부터 20년간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국내 우주과학 발전에 기여했다. 2008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 중 우주·국방 분야 제1유형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을 계기로, 경희는 일반대학원에 WCU우주탐사학과를 설립했다. 현재 우주탐사학과는 달 탐사에 필요한 첨단 탑재체를 개발 중이다.

이번에 이동훈 교수가 개발한 시네마 인공위성은 지상 800km 상공에서 태양이 방출하는 이온·중성자·전자 등의 입자를 검출하고 자기장 변화를 측정한다. 우주공간에 떠도는 수많은 입자들은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주며 지구로 유입되는데, 이를 추적하면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시네마에 탑재된 ‘스타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입자 검출기다. 이동훈 교수는 2013년 2월 시네마 2~3기를 러시아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시네마 개발에는 미국 버클리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시네마를 달 탐사용으로 활용하면 달 표면 국소 지역에 존재하는 자기장의 근원을 규명하고, 달의 기원에 관한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세계적 명문대학의 기본 조건이 학술문화 정착이라는 판단 아래, 경희는 올해부터 ‘학술진흥 2020’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논문과 저서, 창작활동으로 탁월성을 성취하는 것

은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다. 이를 위해, 경희는 지난 5년 동안 500여 명에 이르는 우수교원을 초빙했다. 교원 정년을 연장하고 연구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연구지원체제도 더욱 강화했다.

세계적 석학의 '명품 강의' 연속 개최

학술문화 진흥의 일환으로, 경희는 미원렉처 등 세계적 석학 초청 특강을 예년보다 더 활발하게 개최했다. 세계체제론의 창시자 이매뉴얼 윌러스틴 교수, '철학계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는 슬라보예 지젝,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 피터 카젠스타인 교수,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이 경희의 연단에 섰다. 이들이 들려준 '명품 강의'는 경희의 학술문화에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희는 세계적 석학과의 소통을 통해 대학과 문명, 인류의 미래를 함께 모색했다.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경희의 교육적 성취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 등으로 확인됐다. 경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으며,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기초의과학연구센터사업에 선정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전원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기록도 세웠다.

창학 이래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강조해온 경희는 2012년에도 대학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희 지구사회봉사단(GSC) 몽골봉사단은 의료 지원, 문화예술 활동, 사막화 방지사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몽골 대통령 훈장을 수훈했다. 또, 경희가 제안한 캄보디아 농촌 개발 모델이 KOICA 지원사업에 선정, 내년부터 더욱 활기찬 지구적 사회공헌이 펼쳐진다.

올해 Magnolia 2012 송년회에서 경희는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과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경희 구성원은 미래의 가능성을 현실로 구체화하고, 마음과 열정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3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역대 목련상 수상자

연도	부문	수상자
2009	교육	이성호 교수(작고, 경영대학)
	사회·대학발전 공헌	유명철 석좌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2010	연구	장진 석학교수(이과대학) 손영숙 교수(생명과학대학)
	사회·대학발전 공헌	김창환 명예교수(한의과대학)
2011	교육	도정일 명예교수(문과대학)
	실천	조병춘 사무국장(기획위원회 사무국) 최부영 농구감독(체육부)
2012	연구	이동훈 교수(대학원 우주탐사학과)

조영식 박사가 남긴 '미래 메시지' 최초 공개

개교 50주년, 100주년 메시지 통해
'세계적인 대학 건설'의 비전 제시

경희는 최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중앙회의실(옛 학원장실) 금고를 개방했다. 그곳에는 미원 조영식 박사가 친필 붓글씨로 남긴 글을 포함, 총 9권의 책이 보관돼 있었다.

'경희의 보물'이라고 이름 붙일 그 기록 중에서 경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발견됐다. 1964년, 개교 15주년을 맞아 조영식 박사는 개교 50주년과 100주년을 위한 메시지를 작성하고, 당시 경희 구성원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희는 Magnolia 2012를 개최하며, 이들 문서 원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00주년 메시지에서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 창학정신과 교육방침을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하려는 뜻에서" 시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경희인의) 상호관계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술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 목표, 즉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서,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기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적수공권으로 오늘의 경희를 만든 데 비하면, 앞으로의 노정은 더욱 손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후학에 대한 애정을 다음과 같이 간곡한 당부의 말에 담았다. "친애하는 나의 후배 여러분, 송고한 인류의 사명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민족적 인류적 대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심혈을 경주해 키워온 이 학원을 여러분들도 아끼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겨레, 나아가서는 인류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학원이 되도록 키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교 50주년에 보내는 앙케이트와 관련해 조영식 박사는 "금일의 시대적 카오스(Chaos)의 탁류를 헤치고 새로운 코스모스(Cosmos)를 창조하려는 경희만의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을 발휘해 먼 훗날의 세계와 한국, 경희를 예측해봄으로써 새 역사의 여명을 지적 심안으로 직시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개교 50주년의 세계, 한국사회의 변화상, 경희학원의 성장 등 3개 주제의 37개 질문으로 실시됐다. 개교 100주년을 위한 설문조사도 동일한 질문으로 진행됐다.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본격 착수

1단계 사업, 2015년 7월 완공 목표... 글로벌타워, 기숙사, 종합체육관 건설
이과, 한의과, 간호과학, 공과, 외국어 등 5개 단과대학관도 신축



오는 12월 28일, 경희 구성원 모두의 숙원인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희의 마스터 플랜은 미래를 위한 도전과 창조정신이 응축된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담고 있다.

Space 21 사업은 각 단과대학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건물과 건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경관, 시각 및 표지판, 공공시설물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디자인 개념을 도입, 경희의 역사와 미래비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서울캠퍼스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2015년 7월 완공)	글로벌타워, 한의과대학관, 이과대학관, 간호과학대학관, 공공기숙사 신축
1.5단계	정경대학관, 문과대학관 등 리모델링
2~3단계	종합박물관 건립(창학기념관, 중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통합), 기숙타운 조성
국제캠퍼스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2015년 7월 완공)	공과대학관, 외국어대학관, 종합체육관, 옥외 체육시설, 골프 연습장 신축
2단계	응용과학대학관, 연구산학관, 대학본부 신축 기존 건물 리모델링(공과대학관, 생명과학대학관, 외국어대학관, 학생회관)

Space 21을 통해, 경희는 배려와 존중, 화합과 창조의 대학문화가 살아 숨쉬는 캠퍼스로 거듭난다. 서울캠퍼스는 3단계에 걸쳐, 국제캠퍼스는 2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1단계 사업은 2015년 7월 완공이 목표다.

서울캠퍼스 1단계 사업의 핵심은 글로벌타워 건립과 한의과대학·이과대학·간호과학대학·공공기숙사 신축이다. 글로벌타워는 경희의 '천년 미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국내외 시민사회가 교류하는 NGO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국제캠퍼스 1단계 사업의 중심은 공과대학·외국어대학·종합체육관 신축이다. 옥외 체육시설과 골프 연습장도 마련된다. 수영장과 헬스클럽 외에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될 종합체육관은 구성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Space 21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다소 늦춰진 것은 최적의 교육·연구 공간을 창조한다는 목표 아래,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 공사비를 대폭 축소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했으며,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었다. 2011년에 출범한 재정사업위원회는 캠퍼스 종합개발이 대학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추가 재원을 발굴해 2단계, 3단계 캠퍼스 종합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희의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개교 70주년까지 아시아 정상, 개교 80주년에는 세계 정상권 도약
5개 연계협력 클러스터 구축, 융복합 통해 경희의 교육·연구 정체성 확립



경희의 미래전략은 2019년 개교 70주년 이전에 국내 정상을 넘어 아시아 정상으로, 2029년 개교 80주년 이전에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개교 60주년 이후 국내 정상권에 진입한 경희대학교가 ‘10년 후 경희’를 향한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을 발표한다. 학술기관으로서, 경희의 1차 목표는 융복합을 통해 교육·연구의 탁월성을 성취하고, 세계적 명문대학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학술적 성취를 지역적·지구적 실천과 결합해 21세기가 요구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희의 미래전략은 2019년 개교 70주년 이전에 국내 정상을 넘어 아시아 정상으로, 2029년 개교 80주년 이전에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하버드보다 더 멋진 대학을 만들자”

지난 2월 영면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는 1999년 개교 50주년에 즈음해 “하버드보다 더 멋진 대학을 만들자”고 역설한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 경희는 개교 60주년을 전후해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개교 70주년을 내다보며, 경희대학교는 ‘경이로운 경희’, ‘세계 속의 경희’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수립했다. 미래전략은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지구적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종합발전 로드맵이다.

경희의 미래전략은 기존의 종합발전계획과 다르다. 종전의 발전

계획이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미래전략은 연계와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대학 차원에서는 비전, 핵심 가치, 전략 기초, 영역별 지침 같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단과대학 등 각 단위가구안이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했다.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의 핵심은 연계협력 클러스터 육성이다. 21세기 대학은 교육·연구·실천이 창조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학술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경희는 5개의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63년간 쌓아온 경희의 학풍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적 소임을 다하되, 그 학문이 더 나은 인류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미래전략의 목표는 ‘세계 정상’에 그치지 않고, ‘학문과 평화의 양 날개로 더 멋진 대학, 더 멋진 미래’를 건설하는데 있다.

앞으로 경희는 바이오헬스·미래과학·인류문명·문화예술·사회체육 등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통해 모든 학과와 전공이 고루 참여하는 융복합 신학문을 창출하고, 학술과 실천이 결합된 경희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또한, 전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 특성화를 추진, 대학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목련예술제와 함께하는 2012 송년의 밤

수원시립교향악단,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연주
 경희 음대 교수진, 독특한 형식의 베토벤 3중 협주곡 '트리플 콘체르토' 선보여



올해 Magnolia 2012 목련예술제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과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진이 협연한다.

목련회의에 이어, 2부 행사로 진행되는 목련예술제는 경희 구성원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인기가 높은 문화예술 축제다. 많은 시민이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을 찾아와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며 송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올해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이하 수원시향)이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 E단조 Op. 95를 연주하는 것으로 막이 오른다. 지휘를 맡은 김대진 수원시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의 한 사람이다. 그는 지휘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 '건반 위의 진화론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 2008년 수원시향 제6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후, 화려한 테크닉과 개성 있는 작품 해석으로 수원시향을 조련했다. 수원시향은 그의 지휘 아래 2009년 뉴욕 카네기홀 연주회, 2010년 베토벤 교향곡·협주곡 전곡 연주회를 선보이며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교향악단으로 떠올랐다.

두 번째 순서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진이 베토벤의 3중 협주곡 '트리플 콘체르토' C장조 Op. 56을 연주한다. 현재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원(피아니스트), 송영훈(첼리스트) 교수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이 참여한다. 이들은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함께 'MIK 앙상블'로도 활동 중이다. MIK 앙상블은 지난 9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창단 10주년 콘서

트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연주곡이 3중주이기 때문에 멤버 중 김상진 비올리스트는 공연에 참가하지 않는다.

2009년 이후, 매년 최고 수준의 연주 들려줘

2009년 연말, 제1회 목련예술제가 개최된 뒤부터 경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보여왔다. 첫 해에는 멘델스존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중협주곡'(바이올린 김수빈, 피아노 김정원)에 이어, 정명훈 지휘 아래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경희동문오케스트라와 경희심포니콰이어, 오미선(소프라노), 이아경(메조소프라노), 하석배(테너), 최중우(베이스) 등 성악가가 함께 공연했다.

2010년에는 아프리카 케냐의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 합창단은 케냐 고로초고 지역의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한국인 목사가 2006년 설립한 합창단이다. 연주에 앞서, 조인원 총장은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에게 '지라니 아트스쿨 후원금 및 희망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경희대학교는 2011년 1월에도 고로초고 지역에 '지라니 아트스쿨'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해 목련예술제는 '역경을 넘어, 오늘을 넘어'라는 주제로 크로스오버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개최, 음악예술 대중화에 앞장섰다.

서울 중앙도서관 신축사업

개교 70주년 완공 목표, 건축추진위원회 구성해 세부계획 수립 중
조인원 총장, “최첨단 온·오프라인 결합, 세계와 소통하는 도서관 만들 것”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137만 권의 장서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최첨단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이 오는 2019년, 개교 70주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에 들어간다. 서울캠퍼스는 10월 22일 중앙도서관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치와 비전, 성금 모금 등 정책·재정·건축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미래가 요청하는 도서관은 최첨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민, 세계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21세기 미래대학을 상징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큰 틀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중앙도서관건축추진위원회는 조인원 총장을 위원장, 김진영 중앙도서관장을 부위원장으로서 선임했다. 부총장단과 각 단과대학장, 최동주 재정사업위원장, 도정일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남순건 대학원장, 심범상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장, 신은경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미술학과 석사 4기), 박지하 서울캠퍼스 총

학생회장(국어국문학과 08학번) 등 45명의 구성원은 추진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소통과 공생가치 창출’이라는 경희의 철학을 반영, 34,000㎡ 규모로 신축된다. 공간 확장과 함께 최첨단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학술문화를 진흥하고 대학의 지적 자산을 전 세계 시민과 공유하는 ‘지식 창조의 소통공간’으로 거듭난다.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한 학술자원 서비스로 학문 간 융복합을 지원하고, 인문학적 가치와 정보통신기술(IT)이 결합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자원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7년 안에 신축기금 700억 원 조성 목표

도서관은 학술기관의 심장인 만큼 중앙도서관 신축은 거교적으로 힘과 지혜, 정성을 모아 달성해야 할 사업이다. 중앙도서관건축추진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해 조속히 도서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앙도서관은 앞으로 7년 안에 700억 원의 신축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액기부, 기업의 고액기부, 대학의 대응자금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도서관자치위원회는 지난 학기부터 중앙도서관 신축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 6월 25일 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1968년 개관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2012년 현재 137만 권의 장서와 2,000여 석의 열람석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자료실의 연간 이용자 수는 86만 명에 이른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도 적극 추진, 대학의 지적 자산을 사회에 환원해왔다. 2010년 11월에는 회기동 주민들과 합의를 작성하고 도서관을 개방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실(해피닷컴)과 독서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문명의 본질은 충돌 아닌 소통과 교류”

2012 미원렉처, 세계적 정치학자 피터 카젠스타인 코넬대 석좌교수 초청
 ‘세계 정치와 문명: 동서양을 넘어서’ 주제로 강연



카젠스타인 교수는 “동서양을 구분하고, 문명 간의 충돌을 예견하는 것은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2012 미원렉처(Miwon Lecture) 두 번째 특강이 지난 12월 3일 오비스홀 111호에서 개최됐다. 연사로 초청된 미국 코넬대학교 피터 카젠스타인(Peter J. Katzenstein) 석좌교수의 강연 주제는 ‘세계 정치와 문명: 동서양을 넘어서(Civilizations in World Politics: Beyond East and West)’였다.

카젠스타인 교수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 분야가 교차하는 지점들에 주목하면서, 국제 정치경제·대중문화·종교·법 관련 쟁점들과 세계 정치 속에서의 안보 및 문화를 주제로 연구해온 세계적 석학이다.

서구적 시각의 문명이론 비판

냉전 이후, 세계의 지성과 정치지도자들은 문명의 충돌을 예견했다. 새뮤얼 헌팅턴은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문명 간의 충돌, 즉 서구 문명이 중국·이슬람 문명과 서로 대립하는 ‘문명

충돌’이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문화와 이념에 대한 서구의 공격으로부터 중국이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충돌하는 문명

헌팅턴 등의 주장에 대해 카젠스타인 교수는 “복잡하고 글로벌한 세계에서, 관습적 사고와 공공 논쟁은 역설적이게도 동양과 서양이라는 단순 범주로 구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분법적 구분의 기원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제국주의 팽창의 문화적 근거가 문명인과 비문명인으로 이분화한 정치적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서양을 구분하고 문명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충돌을 예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문명의 중화화(中華化), 유럽화, 미국화,

일본화, 인도화, 이슬람화 등 서로 다른 문명화 과정의 유사성을 지적한 뒤, 카젠스타인 교수는 “문명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며, 상이하고 다양한 근대성들이 서로 대면하고 교류·진화하면서 타협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명은 단일화되거나 배타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다원주의적 경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카젠스타인 교수에 따르면, 문명 간의 차이가 ‘충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집단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문명의 본질을 왜곡하고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문명이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는 현대의 정치인과 지성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동서양을 나누는 다리를 건너 지금껏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여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카젠스타인 교수는 특강 후 라운드테이블과 4일 열린 미원렉처 콜로키움에 참여했다. 라운드 테이블과 콜로키움은 최근 경희대학교가 현대문명의 한계와 대안에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인 ‘인류문명클러스터’ 설립 방향과 전략 수립에 앞서, 인류문명에 대한 학내의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인류문명클러스터는 현재의 학문분야 및 학사제도를 넘어, 세계의 현실과 인간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인류문명에 대한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계협력 클러스터다.

미원렉처는 국내의 석학과 거장, 실천인을 연사로 초빙해 더 나은 인간과 세계,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특별 강연이다. 2010년 시작해 5회째를 맞고 있다.

이익과 가치,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조인원 총장, 경영대학원 특강 통해 정치학·경영학 간 소통 모색
 “경제가 전부라는 인식 경계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조인원 총장은 더 나은 인간과 세계, 문명의 미래를 위해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이 11월 6일 오비스홀에서 ‘이익과 가치,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Interests and Value: Can They be Happy Together?)’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익’과 ‘가치’의 관계에 대해 학문 간 경계를 넘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날 특강에는 경영대학원 교수와 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이익 신화’

현대사회의 핵심 아젠다 중의 하나가 경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가 전부’라는 인식은 사회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현대사회에서 경제가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생존하기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욕구 때문이다. 현대의 시장제도, 그리고 현대를 추동하는 또 다

른 역사의 축인 국가와 정치가 경제활동을 극대화하는 ‘이익 신화’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됐다.

정치권이 ‘이익 신화’를 추종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관련, 조인원 총장은 “정치권이 기업활동을 촉진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이는 곧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처벌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조인원 총장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이념, 가치와 상관없이 시장경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인원 총장은 21세기의 시민적 가치 확산과 가치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우애와 연민, 소통과 연대로 상징되는 시민적 가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등 가치의 다양성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다양해진 가치를 지혜롭게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 정치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동체를 위한 가치의 중요성 강조

조인원 총장은 “더 나은 인간과 세계, 문명의 미래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와 실천,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서, 최근 82세의 나이에도 풀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이론을 소개했다.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최근의 저서 <The Social Conquest of Earth>를 통해 평생의 연구를 뒤엎는 이론을 발표했다. 즉 ‘공동체 보존을 위한 이타적인 그룹이 진화 과정을 통해 진화해나간다’는 것이다.

윌슨 교수의 이론은 ‘자기중심적인 집단이 진화 과정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선택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인원 총장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한의학 선구자’ 청강 김영훈 선생 유품 기부

유족, 근대문화유산 955점 포함 역사자료 1,600여 점, 토지 46만^m² 기증
3대에 걸친 경희사랑 실천, “한의학 발전에 사용해주실 것” 당부



청강 김영훈 선생 유품 근대문화유산 문화재 지정 축하 및 기부증서 전달식. 작은 사진은 유족 대표인 김기수 전 포르투갈 대사.

한 국 근현대 한의학 역사의 산 증인으로 평가받는 청강 김영훈(淸崗 金永勳, 1882~1974) 선생의 유품이 경희대에 기증됐다. 유족들은 지난 10월 18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청강 김영훈 선생 유품 근대문화유산 문화재 지정 축하 및 기부증서 전달식’을 통해 선생의 유품 1,600

여 점과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토지 46만^m² (약 14만 평)를 경희대에 기부하고, 이를 국내 한의학 발전에 사용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품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진료기록물 21건, 955점이 포함돼 있다.

청강 김영훈 선생의 유족이 소중한 유품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경희대학교는

한의학 제2의 중흥을 통해 한의과대학 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이날 기부증서 전달식에서 유족 대표인 김기수 전 포르투갈 대사는 “아버님의 유품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기까지 지난 13년 동안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준 경희대학교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수 전 포르투갈 대사는 1999년 김영훈 선생의 유품을 경희대에 기탁했으며, 그의 아들인 김용건 포스코 캐나다 지사장은 매년 한의과대학에 연구비를 기부해왔다. 3대에 걸쳐 문화적·경제적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김영훈 선생은 1904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대학으로 설립된 동제의학고교수를 역임했으며, 이번에 ‘등록문화재 제503호’로 지정된 유품은 선생이 1914년부터 1974년까지 한국전쟁 기간을 제외한 60여 년 동안 서울 종로에서 보춘의원을 운영하면서 기록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의학서 <수세현서(壽世玄書)> 필사본, 구황실 전의(典醫) 자료 등이다.

경희, UN ECOSOC 특별협의 지위 획득

국내 대학 최초, 유엔 회의 참석하고 유엔 활동에도 참여

경희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경희대학교는 앞으로 유엔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 구두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이슈에 관해 현장경험을 통한 전문가 분석을 제공하고, 국

제적 협약에 대한 감시와 이행을 지원하는 등 유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유엔 및 국제 NGO 회원 단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와 관련된 지구적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마련, 회원국과

유엔 체제에 제공하는 유엔의 핵심 기구 중 하나다.

경희대학교는 ‘대학은 학문 발전과 함께 사회와 국제사회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 아래, 지난 63년 동안 고등교육과 사회공헌을 통해 국가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해왔다. 1981년 유엔이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평화복지대학원은 1993년 교육기관 최초로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 2011년 9월 15일에는 ‘UN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학관 학생식당 리모델링

커뮤니티룸·카페 신설, 학습·문화·소통 공간으로 탄생
학생들의 품질 개선 요구 수렴, 메뉴 다양화



국제캠퍼스 공학관 학생식당이 커뮤니티룸과 카페를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을 마치고 9월 17일 재개장했다.

국제캠퍼스 공학관 학생식당이 학습과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식당과 매점을 새 단장하고, 커뮤니티룸과 카페 3실을 신설했다.

지난 8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 9월 17일 다시 문을 연 공학관 학생식당은 구성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경희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식당개선사업이 거둔 또 하나의 결실이다. 서울캠퍼스도 올해 청운관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을 리모델링한 바 있다.

공학관 학생식당의 가장 큰 변화는 공간 구성이다. 기존에는 시설이 노후한 데다 식당과 매점만 입주해 있어 식사시간 이외에는 공간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번에 커뮤니티룸과 카페를 새로 설치, 학생식당을 세미나·커뮤니티·소규모 모임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식단의 대폭적 개선도 이뤄졌다. 한식·

양식·분식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2,000~3,200원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품질 면에서는 식약청 HACCP 기준을 준수, 5일 이내에 도정된 쌀과 국내산 김치를 사용하고 가공품을 배제해 맛과 영양을 향상시켰다.

공청회 개최, 구성원 의견 수렴

공학관 학생식당 리모델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사결정과 추진 과정의 소통이다.

국제캠퍼스는 지난 4월 식당개선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9월 중순까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9월 6일에는 구성원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공간 설계와 디자인, 식자재 품질과 음식의 질, 합리적 운영계획 등 학생식당 전반에 걸쳐 구성원 의견을 수렴,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직원연구년제 첫 결실 맺어

성금캠페인통합사무국
김동환 계장, 뉴욕대 유학

지난 5년간 행정 전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온 경희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직원연구년제를 본격 시행했다. 직원연구년제는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적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첫 연구직원으로 선정된 성금캠페인통합사무국 김동환 행정계장은 2011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미국 뉴욕대(NYU)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연구 주제는 '대학발전기금 모금'이었다. 그는 1년 동안 미국 대학과 비영리기관의 기금 모금에 관해 연구하고, 경희의 상황에 맞는 모금 기획과 시뮬레이션 과제를 수행했다.

김동환 계장은 2001년 3월 국제캠퍼스에 임용된 후 총무과, 대외협력처, 동서의학대학원, 공과대학을 거치며 다양한 행정업무를 습득했다. 특히, 2004년부터 5년 동안 대외협력처에서 발전기금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연구 주제 선정의 계기가 됐다. 당시 그는 전국대학발전기금모금협의회 간사를 역임하고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기금 모금 및 국제기부(Global Philanthropy) 전문가 인증서를 취득하고 돌아와 서울캠퍼스 성금캠페인통합사무국에서 근무 중인 김동환 계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기금 모금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구년 기간에 배운 내용을 대학행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대에서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온 김동환 계장.

경희의 희망나눔 토크 ‘암을 넘어선 삶’

‘치유·희망·비전’ 주제로 환자와 가족에게 긍정의 메시지 전달
환자의 마음 위로하고 ‘기적을 낳는’ 암센터 건립 제안



경희의료원과 경희대가 지난 10월 16일 개최한 ‘희망나눔 토크-암을 넘어선 삶’에는 환자·보호자·지역주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눴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통증으로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의사의 권유대로 균형 있는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다보니 암을 극복하게 됐다.”

이는 경희의료원과 경희대가 지난 10월 16일 개최한 ‘희망나눔 토크-암을 넘어선 삶(Life Beyond Cancer)’에서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이 들려준 암 투병기다.

‘치유(Healing), 희망(Hope), 비전(Vision)’을 주제로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환자·보호자·지역주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키웠다.

경희는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 나아가 암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 모두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과 소

통의 힘, 치유에 대한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희망나눔 토크’를 마련했다.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 1부 행사에서는 경희의료원 비뇨기과 장성구 교수(대한암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손영숙 교수,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방영주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 등 암치료 분야 전문가들이 로봇수술, 줄기세포 치료, 표적치료제와 맞춤 치료 등 암치료의 최신 동향을 들려줬다.

200여 명에게 무료 건강검진 실시

‘희망’을 주제로 한 2부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그는 ‘Kiss the Rain’, ‘기억에 머무르다’ 등 참석자에게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2009년 악성 림프종양 진단 후 현재 완치 단계에 이른 차인태 전 아나운서는 암 투병기를 들려줬다.

3부에서는 ‘비전’을 주제로 이상적인 암

센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디자인하라”는 디자인 철학을 소개한 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암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를 지낸 김의신 박사는 “암센터가 치료를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환자에게 희망을 심어줘 기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진들에게 한국인에 맞는 약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사의 지시를 따르면서 마음을 편하게 갖는 사람이 기적을 이뤄낸다”며 환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해인 수녀는 대장암과 투병하며 쓴 시 ‘희망은 깨어 있네’, ‘어떤 결심’ 등을 낭독,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한편, 행사장 밖에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는 참가자 200여 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다.

2012 경희 스포츠의 약진

스포츠 경희 2012년: 핸드볼부, 대학선수권대회 우승
쇼트트랙부, 전국스피드스케이팅 금 1, 은 2, 동 4 수확



경희대 농구부가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에서 지난해 우승에 이어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농구부가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 3월 19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정규리그 1~2라운드,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순으로 진행됐다. 경희대는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우승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까지 제패, 대학농구 최강자임을 확인했다.

정규리그 전 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평균 22.6점을 기록한 김민구(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학생은 2년 연속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고, 김종규(10학번) 학생은 챔피언 결정전 MVP에 선정됐다. 최부영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경희대는 정규리그 22경기에서 단 1패만을 내주며 승률 95.5%라는 기록을 세웠다.

한편, 핸드볼부는 2012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의 결승 상대는

유력한 우승후보인 한체대였다. 경희대는 한체대와 접전을 펼친 끝에 26-23으로 승리, 4승 1패로 동물을 이뤘으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우승을 차지했다. 오상환(스포츠지도학과 12학번) 학생은 최우수선수상, 김만호(체육학과 86학번)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쇼트트랙부의 활약도 눈부셨다. 김병준(스포츠지도학과 09학번) 학생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SU(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제2차 월드컵'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창원에서 열린 전국남녀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따내는 성적을 올렸다. 여자대학부 1,500m 결승에 출전한 손수민(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선수는 2분 46초 153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제93회 전국체전 금 7, 은 6, 동 6

양궁 정다소미 학생 2관왕
체조 황수빈 학생 3연패
태권도 금 3, 은 3 수확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희 선수들이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차지했다.

태권도부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여자대학부 대구 대표로 출전한 73kg 이하 급의 박미연(태권도학과 09학번) 학생과 울산 대표로 출전한 53kg 이하 급 김유진(10학번) 학생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원 대표로 출전한 장별(11학번) 학생과 전남 대표로 출전한 조혜린(09학번) 학생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남자대학부에서는 전남 대표로 출전한 63kg 이하 급의 서병덕(11학번) 학생이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송환(12학번) 학생은 인천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양궁부는 남녀 합계 금메달 3개, 동메달 5개를 차지하며 양궁 명문의 이름을 떨쳤다. 여자대학부 거리별 종목경기에서 정다소미(스포츠지도학과 09학번), 김희애(12학번) 학생은 30m, 7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다소미 학생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남자대학부 경기에 나선 정성원(07학번) 학생은 동메달 3개를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남녀 모두 동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체조부는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부산 대표로 출전한 황수빈(12학번) 학생은 마루 결승에서 14.750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황수빈 학생은 전국체전 마루 종목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울산 대표로 안마 종목에 출전한 김찬송(10학번) 학생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3년 만에 전국체전에 출전한 축구부는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팀인 농구부도 프로선수로 구성된 '아마 최강' 국군체육부대(상무)에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드민턴 개인복식 경기에서는 김덕영(10학번), 김동민(12학번)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학습 커뮤니티·경희 OER 등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대학'에 선정, 교육의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경희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으로 22억 9,300만 원을 지원 받은 경희대는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로 9,80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교과부는 매년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인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경희대를 비롯해 건국대·동국대·중앙대 등 전국 24개 대학이 '성과평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경희대는 사업관리의 체계성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기주도형 학습능력 배양하는 성과

경희대는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사업 시행 초기, 경희대는 해외 인턴십,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국제화 시설 첨단화, 교환학생 해외파견 등 국제화 교육에 주력해왔다.

이후, 각종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교육 역량을 강화해왔다. 맞춤형 취업진로 프로그램, 학습 커뮤니티, 경희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Global Collaborative 등이 대표적이다.

2011년 도입된 학습 커뮤니티는 학생들이 공동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기주도형 학습 능력을 키우고, 전공지식의 심화뿐 아니라 전공 간 융합, 창의적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희의 학습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학문적 유대감 속에서 자발적 학습활동을 수행, 핵심역량을 배양하고 새로운 학습문화를 창출하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희대는 OER을 비롯한 강의 공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 사업으로 경희대는 '2010 교육역량 우수 사례 공모 교육 프로그램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글로벌 수준의 강의공개, 사회공헌 실천

경희의 강의 공개 프로그램은 강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글로벌 수준의 고급 강의를 제공해 대학의 사회공헌에 기여했다.

경희대는 지난 5년간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세계시민 역량, 글로벌 역량, 인문학적 소양,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BK21 종합평가 결과 16개 사업 '우수' 등급 획득

9개 사업팀 '매우 우수' 평가, 7개 팀은 '우수'



BK21 종합평가에서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기술 연구' 사업팀이 교과부장관 표창 및 포상을 받았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을 통해 경희의 연구 탁월성이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실시한 2단계 BK21 사업 종합평가에서 경희대는 17개 사업단(팀) 중 16개 사업단(팀)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특히, 연차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유지해온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기술 연구' 사업팀은 이번 종합평가에서도 '매우 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타 사업팀의 평균 특허출원·등록 건수가 2건, 연구비 수주 실적이 2억 원인 반면,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기술 연구' 사업팀은 특허출원 및 등록 23건, 연구비 수주 23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나노구조 광물성 연구팀, 나노-바이오 응용화학 사업팀, 기능성 천연 바이오 소재 사업단, 나노-마이크로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변환 사업팀, 창의적 모

바일 멀티미디어 사업팀, 미래 컨버전스 서비스 플랫폼 연구팀, 친환경 건축물의 성능 향상 기술팀, 의료영상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팀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 학생 및 신진 연구인력(박사 후 연구원, 계약 교수)을 집중 지원하는 고등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1999년~2005년 1단계 사업이 종료된 후 2006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교과부는 내년 2월, 2단계 BK21 사업 종료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각 대학 사업단(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2011년도 운영 성과와 함께, 6년간의 2단계 사업 실적을 종합평가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등급으로 구분된 평가 결과에 따라, 교과부는 사업단(팀) 20팀, 참여 대학원생 11명을 우수 성과로 선정했다.

디스플레이 응용 연구사업팀, 교과부장관 표창

연구 책임자, 최재우 교수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기술 연구' 사업팀(이하 디스플레이연구사업팀, 연구책임자: 최재우 교수)이 지난 10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및 포상을 받았다. 이는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디스플레이연구사업팀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액정디스플레이·유기발광다이오드 등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박막트랜지스터(TFT)에 기반을 둔 플렉시블(Flexible) 디스플레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유리 기판을 사용하는 기존 평판디스플레이(FPD)와 달리, 플라스틱 소재의 기판을 사용한다. 깨지지 않고, 가볍고, 휘어지는 특성을 지닌 최첨단 디스플레이이다. 두루마리처럼 말 수 있어 휴대기기, 의료기기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화할 경우, 벽지처럼 바르거나 유리창 자체를 디스플레이로 전환할 수 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연구사업팀은 OLED 대형화 기술 개발은 물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창조적 발상과 의지로 3차원 디스플레이(3D Display) 연구를 시작했다.

특수 안경을 이용하는 3차원 텔레비전은 이미 2010년 시장에 등장했고, 최근 무안경 3차원 텔레비전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입체감과 해상도가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와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디스플레이연구사업팀은 무안경 3차원 디스플레이의 상용화까지 염두에 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경희는 1997년 대학원 석사과정에 국내 최초로 정보디스플레이 전공을 신설한 데 이어, 2001년 박사과정과 학부 연계 전공 과정을 개설했다. 2004년에는 세계 최초로 학부과정을 도입했다. 이후, 2005년 수도권 특성화 사업 선정(4년간 총 124억 원 지원), 2006년 BK21 사업 선정 등을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희가족’ 정신으로 이뤄낸 노사 화합

경희의료원 단체협약 조인, 사립대 의료원 최초의 자율 타결
의료윤리위원회 운영, 직원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경희의료원 노사가 지난 10월 12일 ‘의료원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모아 2012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사립대 의료원 최초로 자율 타결을 이룬 것이다. 경희의 가족정신으로 소통과 화합 노력을 기울여 온 노사 모두의 승리였다.

이에 앞서, 경희의료원 노사는 9월 20일로 예정됐던 파업 3시간 전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노조는 조합원 투표로 이를 인준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사가 경희의료원 발전과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2013년 단체교섭 방법에 대한 논의구조에 참여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희의료원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월부터 수차례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왔다.

교섭 초기, 노사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희의료원은 ‘의료원의 경쟁력은 구성원이며 노조는 경희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노조 역시 노사화합에 대한 경희의료원의 진정성을 믿고 교섭을 진행, 합의안을 끌어냈다.

경희의료원 임영진 의료원장은 “이번 교섭 과정을 통해 경희의 가족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면서 “암센터 건립,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추진 등 경희의료원이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노조의 양보와 배려, 의료원에 대한 사랑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영진



지난 10월 12일, 경희의료원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사립대 의료원 최초로 자율 타결을 이뤄냈다.

의료원장은 “노사 간의 화합정신을 마중물로 삼아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1년 365일을 교섭 과정으로 생각하고,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 경희인의 밤’ 개최

이건수 동문, 2년 연속 학교발전기금 3억 원 쾌척



‘2012 경희인의 밤’에 조인원 총장과 이봉관 총동문회장, 김용철 이사장 등 1천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2012 경희인의 밤’이 지난 11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경희대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송년회를 겸한 자리로, 조인원 총장과 이봉관 총동문회장,

김용철 이사장 등 1,0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경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유했다.

조인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964년 경희는 개교 15주년을 맞아 ‘경이로운 경희’를 비전으

로 선포했다”면서 “이는 발전을 도모하며 세계적인 경희의 창조적 문화세계를 열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받아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걸어왔다. 경희는 개교 70주년 이전에 아시아 정상, 개교 80주년까지 세계 정상권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경희는 우수교원을 지속적으로 영입, 2014년에는 교수진이 1,6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원 총장은 “동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수진, 직원, 대학이 함께 노력해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봉관 총동문회장은 “매년 상승하는 경희의 위상과 더불어, 동문회도 발전하고 자랑스러운 동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학과 동문회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건수(정치외교학과 60학번) 동문은 지난해 경희인의 밤에서 3억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한 데 이어, 이날도 3억 원을 쾌척하며 동문들의 기부를 독려했다.

소중한 뜻과 정성 담긴 나눔문화

1년간 모은 기금으로 학생 131명에게 장학금 지급



올해 131명의 학생에게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경희대학교의 발전기금 소액모금 프로그램 '매그놀리아 스토리(Magnolia Story)'를 통한 장학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매그놀리아 스토리의 첫 장학생 44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 131명(서울 74명, 국제 5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규모도 3,906만 원에서 1억 2,829만 8,000원으로 늘었다.

지난 11월 9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학년도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증서 전달식'에서 조인원 총장은 "우리 모두는 개인이면서도 경희 공동체의 구성원, 더 나아가 사회와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며 "경희는 지난 63년 동안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이념 아래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식과 가치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이 같은 경희정신

과 전통 속에서 선배들의 소중한 뜻과 정성이 담긴 나눔 운동이다. 장학금을 받는 후배들도 대학에 다니면서 또는 사회에 진출한 뒤 후배들을 위해 도움과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한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의과대학 발전기금과 장학금 5억 2,400만 원을 기부해 온 김연수(한의학과 63학번) 동문은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금은 동문과 재학생, 교수, 직원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해 뜻깊다"라며,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멋진 선배, 아울러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연수 동문은 서울 관악구 서림동(구 신림2동)에서 44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지역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나눔에 앞장선 간호대 교수 6명 명예의 전당 헌액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고액기부 교수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 헌액식 및 감사패 전달식이 12월 3일 서울캠퍼스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새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6명은 전원이 간호과학대학 교수들로, 강현숙, 김광주, 김윤희, 이향련 명예교수와 현경선 간호과학대학 학장, 김원옥 교수 등이었다. 헌액식에는 김정만 서울부총장, 유명철 의무부총장, 김운호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만 부총장은 "간호대학에는 기부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한 문화가 경희학원 전체로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수들은 모두 5,000만 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현경선 간호과학대학 학장은 최근 5,000만 원을 추가해 기부액이 1억 원을 넘어섰다. 현경선 학장은 "건강을 위해 걷자는 생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모아둔 금액을 학교 발전에 보태기로 했다"면서, "기부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경선 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꾸준한 기부를 약속했다.

40여 년 동안 재직해 온 김윤희, 이향련, 강현숙 명예교수는 "경희대학교와 간호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후학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 명예교수는 "1997년부터 조금씩 기부해왔는데, 그 사이 큰 금액으로 쌓였다"면서, "42년 6개월 동안 학교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감사할 일이 많아 보답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경희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관련, 김원옥 교수는 "동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운호 대외협력처장은 "학교 전체는 물론, 단과대학 차원에서도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부자들에게 대한 예우와 의료기관 이용 등의 서비스 수준을 더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경희의 연구 성과, 세계적 학술지 게재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장진 교수팀, 미국 전기전자학회 최고 논문상 수상
전자·전파공학과 박욱 교수와 김선국 교수 논문, 권위 있는 저널 표지에 실려



미국 전기전자학회 전자소자학회지의 최고 논문상을 수상한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장진 교수팀 연구실.

연 구 탁월성을 통해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 중인 경희대학교가 최근 5년간의 지속적인 연구 투자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장진 교수팀은 한국 연구진 최초로 <미국 전기전자학회 전자소자학회지(IEEE Electron Device Letters)> 최고 논문상인 '조지 E 스미스 상'을 수상했다. 전자·전파공학과 박욱 교수 연구팀은 위조 약품 제조·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QR코드 마이크로 식별자'를 개발했다. 박욱 교수와 서울대 권성훈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11월 20일자 표지논문으로 발표됐다. 또, 전자·전파공학과 김선국 교수와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최용 교수 공동연구팀의 논문이 지난 8월 <네이처>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데 이어, 또다른 논문이 신소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스> 11월호 표지로 선정됐다.

장진 교수, 투명 플라스틱 회로 최초 개발



장진 교수팀은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인 인듐·갈륨·아연산화물(IGZO) 박막트랜지스터(TFT)에 기반을 둔 투명 플렉시블 구동회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 <미국 전기전자학회 전자소자학회지> 2011년 2월호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012년 최고 논문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최근 학계와 산업계는 평판 디스플레이를 넘어, 투명하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장진 교수팀은 휘어지는 플라스틱에도 활용이 가능한 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를 개발하고, 이를 작동시키는 디스플레이 회로를 만들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박욱 교수팀, '마이크로 식별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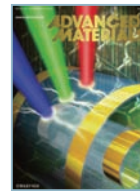
전자·전파공학과 박욱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QR코드 마이크로 식별자'는 먼지만한 크기의 식별자에 기존 바코드 대비

100배 이상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QR코드 기술을 적용했다. 약의 이름, 성분, 제조지, 제조일, 유통기한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식별자를 약물과 함께 제조하면, 포장 수준이 아닌 재료 수준에서 위조약 제조를 막을 수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의약품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에 인증기술을 도입했으나, 이는 복제가 쉽고 포장을 제거하면 진위 여부 판별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박욱 교수 연구팀은 중전의 문제점을 보완,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고 오류를 복원하는 QR코드 마이크로 식별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김선국 교수팀,

차세대 광전자소자 개발 가능성 열어



전자·전파공학과 김선국 교수 연구팀은 초고이동도 박막 트랜지스터 개발 관련 논문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했고,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스>에는 적외선에서부터 자외선까지 반응하는 광전자소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차원 나노 판상구조를 갖는 다층 이황화 물리브덴을 매개체로 이용한 초고이동도 박막트랜지스터를 개발해 기존 실리콘을 대체하는 고이동도 전자소자이자 보다 넓은 광영역대에 반응하는 광전자 소자로의 활용 가능성을 규명했다.

2차원 나노의 고유성과 고투과 특성을 활용하면 투명하고 휘어짐이 가능한 광전자소자 개발은 물론, 넓은 광영역대에 반응하는 광터치 센서, 광다이오드, 태양광 전지,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익신 박사, 경희 에미넌트 스칼라 임명



경희대학교가 1980년부터 31년간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를 지낸 김익신 박사를 의학전문대학원 에미넌트 스칼라(Eminent Scholar,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에미넌트 스칼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를 초빙,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초빙된 학자들은 경희대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학부생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김익신 박사는 미국 최고의 암 전문병원으로 꼽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방사선 및 내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8월 퇴임했다. 1991년과 1994년 '미국 최고 의사(The Best Doctors of America)'에 선정된 바 있다. 평생에 걸쳐 암 환자를 보살피면서 인류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왔다. 김익신 박사는 "최근 미국 의학계에서는 양방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한방에서 찾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방 의술을 보유한 경희대학교에서 양방과 한방을 복합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면 지금까지 밝혀지 못한 질병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욱 교수팀, 침·봉독약침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 최초 입증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팀이 파킨슨병의 한방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서 침 치료와 봉독약침 치료의 유효성' 연구를 발표했다. 논문은 9월 뇌신경 분야의 저명 학술지 <Parkinsonism and Related Disorders>에 게재됐다. 최근 파킨슨병의 보완·대체의학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치료법이 침과 봉독약침이다. 침과 봉독약침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와 관련,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진·박소라 학생, 2012 대한민국인재상



이동진(건축공학과 07학번), 박소라(사진·한의학과 05학번) 학생이 10월 14일 2012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뛰어난 인성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거나 창의적 사고로 탁월한 성취를 이룬 대학생 40명, 고교생 60명을 선정,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동진 학생은 아마존 정글 마라톤 완주, 히말라야 등정 등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소라 학생은 한방진료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 지역 어르신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왔다.

신봉승·류시화 동문, 제25회 경희문학상 수상

극작가 신봉승(국문과 57학번) 동문과 시인 류시화(국문과 78학번) 동문이 11월 16일 제25회 경희문학상을 수상했다. 경희문학상은 경희대학교, 경희대 대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 출신 문인 가운데, 최근에 작품집을 발표하고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문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 작품집은 신봉승 동문의 희곡집 <노랑과 광기(선, 2012)>, 류시화 동문의 시집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문학의숲, 2012)>이다.

이지수·이진욱 학생, 한의과대학 건축기금 기부

한의과대학 이지수(한의학과 08학번) 학생과 이진욱(10학번) 학생이 한의과대학 건축기금으로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지수 학생은 장학금과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원정대 수상 상금을 합쳐 기금을 마련했다. 그는

"지난 5년간 한의과대학에서 공부하며 얻은 것에 비하면 무척 작은 기여라고 생각한다"면서 "졸업 후에도 모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기부한 이진욱 학생은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한의대 신축에 관심을 갖고 작은 정성을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승 동문, 캐나다 '다이아몬드 주빌리 훈장' 수훈



캐나다에 거주하는 정혜승(무용학과 85학번) 밴쿠버한국무용단 단장이 10월 28일 '다이아몬드 주빌리 훈장(Queens Diamond Jubilee Medal, 복합문화 부문)'을 수훈했다. 다이아몬드 주빌리 훈장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 위상을 드높인 시민에게 수여한다. 정혜승 동문은 1996년 밴쿠버한국무용단을 창단, 매년 한국전통 무용축제를 개최하는 등 캐나다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보급해왔다.

박선아·서지혜·장광훈·권민기·이태호 학생,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석권

박선아(화학공학과 09학번), 서지혜(생체의공학과 10학번), 장광훈(전자전자공학과 06학번), 권민기(건축공학과 06학번), 이태호(컴퓨터공학과 07학번) 학생이 10월 24일 개최된 제6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휩쓸었다. 경희대학교는 전국 56개 출전 대학 중 최다 수상 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자기소개서 등 취업 및 진학 인터뷰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활동과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자기개발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김민기 학생, 2012 세계대학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금메달

배드민턴부 김민기(스포츠지도학과 11학번) 학생이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12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 남녀혼합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6명, 여자 6명 등 총 12명의 선수로 구성된 한국 대학대표팀은 결승전에서 강호 중국을 3-0으로 완파했다. 한국 대표팀은 이 대회에 참가한 이래 남녀혼합단체전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형민 교수팀, 2012년 기초연구 우수성과 선정



한의과대학 김형민 교수팀의 논문이 2012년 기초연구 우수성과에 선정됐다. 김형민 교수팀은 인터루킨-32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인자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입막션, 코 점막, 혈장 등에서 인터루킨-32의 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기초연구 우수성과에 선정됨에 따라 김형민 교수팀은 그동안 수행해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을 3년간 추가 지원받게 됐다.

김광철 교수, 2012 서울특별시봉사상 최우수상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김광철 교수가 10월 29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2012 서울특별시봉사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광철 교수는 1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복지시설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구강위생에 관한 강연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김혜정 혜정박물관장, 문화재청 문화훈장 수상

김혜정 혜정박물관장이 12월 1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매년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활용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문화훈장과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문화훈장 수상자는 3명이다. 김혜정 관장은 고구려사 왜곡과 독도 문제 등 역사·영토 분쟁과 관련된 결정적인 사료를 수집, 이를 경희대학교에 기증해 박물관을 설립했다.



2012학년도 7차 합동교무위원회

2012학년도 7차 합동교무위원회가 10월 30일 국제캠퍼스 피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고등교육기관, 학술기관인 대학은 평가와 상관없이 교육·연구의 탁월성, 재정 건강도, 성공적인 국제화, 학계 및 사회의 평판 등을 핵심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학술 분야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이뤄내는 것이 대학의 근본 가치”라고 말한 조인원 총장은 “학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학과, 교수 한 분 한 분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희대학교는 앞으로 대학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학술문화 진흥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각 학과 및 단과대학(원)의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 전공별·계열별·개인별 연구 지원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희대 치과병원,

헬스조선 메디컬·건강산업 대상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이 2012 헬스조선 메디컬·건강산업 대상에서 치과 의료서비스 부문 메디컬대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연구개발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료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줬는지를 심사의 양대 원칙으로 삼았다”면서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이 지난 40여 년간 국내 치과기술 발전을 선도한 점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은 1997년 치아와 턱 교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급속 교정술을 개발, 종전까지 2~3년 걸리던 교정을 6개월~1년 반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0년에는 미국

과 일본 의료진이 경희대 치과병원을 방문, 급속 교정술을 배워 가기도 했다.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급속 교정 및 턱·얼굴 교정을 위해 교정과와 구강외과가 진단 초기부터 협진하는 ‘KIFOX(Kyung Hee International Facial Orthodontic Research Institute)’를 개설한 바 있다.

한의과대 학생 178명, 건축기금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캠퍼스종합개발사업 ‘Space 21’ 1단계 사업에 포함된 한의과대학 신축의 성공을 염원하며 건축기금을 기부했다. 9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건축기금 모금 활동을 펼친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건축기금 14,854,000원을 조성했다. 한의과대학 학생 178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기금은 지난 12월 6일 한의과대학 중경실에서 열린 ‘한의과대학 학생 건축기금 모금 전달식’을 통해 전달됐다. 그동안 한의과대학은 학생건축위원회를 구성, 한의과대학 숙원사업인 단과대학 건물 신축사업에 참여해왔다. 아울러 한의과대학 건물의 성공적 신축을 위해 7월부터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 130명이 넘는 동문이 기부를 약속하기도 했다.

경희의 연구 역량 안정적 성과

경희대학교가 지난 5년간 국내외 우수교원을 적극 총원하며 교육·연구에 집중 투자해온 노력이 안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8일 발표된 2012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경희대는 2007년 전임교원 수가 1,180명이었던 데 반해, 2012년에는 1,418명으로 5년간 20% 늘어났다. 외국인 교수도 2009년 52명에서 올해 1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구 지원제도를 확대·도입하며 연구 수월성을 확보해온 결과, 교수연구 부문에서 경희는 2007년 19위에서 2010년 9위로 뛰어오른 후 올해까지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중앙일보 평가에서 경희대는 종합 8위에 올랐다. 점수는 300점 만점에 210.2점으로, 7위 서강대와와 점수 차는 0.7점이었다.

경희의료원 개원 41주년 기념식

지난 10월 5일 경희의료원이 개원 4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희의료원이 되자”면서 “현재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더욱 정진하고 성장하는 경희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희의학상 및 미원임상의학상 시상식, 장기근속자·우수부서·우수교직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경희의학상 금상은 소화기내과 이창균 조교수, 은상은 교정과 박기호 조교수 외 2명, 동상은 정형외과 윤경호 교수 외 5명이 수상했다. 미원임상의학상 금상은 신경외과 이봉암 교수 외 4명이 차지했다. 은상은 신경외과 장대일 교수 외 4명, 동상은 신경외과 최석근 조교수 외 4명이 수상했다.

2012 경희오케스트라 페스티벌

2012 경희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11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관현 전공 재학생의 정기연주회로 구성됐다. 21일에는 기악과 1~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경희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서진 교수의 지휘 아



래, 한성호(작곡과 04학번) 동문이 작곡한 ‘스크리아빈 주제에 의한 광시곡(Rhapsody on a Theme by Scriabin)’으로 공연이 시작됐다. 둘째날에는 기악과 3~4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경희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랐다. 이날 공연에서 지휘를 맡은 윤승업 교수는 정교한 몸짓으로 경희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신비롭고 장엄한 선율을 이끌어냈다.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는 1955년 창단한 이래, 매 학기 심포니 정기연주회, 필하모닉 정기연주회, 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관악합주 정기연주회 등 수많은 연주를 개최하고 있다.

‘책 읽기의 즐거움’ 세 번째 특강



‘책 읽기의 즐거움’ 세 번째 명사특강이 10월 8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열렸다. 강연자는 인문학 분야 석학인 후마니타스칼리지 도정일 대학장이었다.

책 읽기의 즐거움-명사특강은 구성원의 학문적 관심과 독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희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 이들의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정치학자인 조인원 총장, 생명공학 분야의 석학 김지영 교수가 강연자로 초청된 바 있다. 도정일 대학장은 ‘고향을 돌아보라, 천사여’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흔히 많은 소유가 행복의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으며, 행복의 비결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

‘2012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수료식이 12월 5일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경희대학교 심화반, 강동지역 자활센터, 광진 늘푸른 인문대, 중랑유리지역 자활센터 등 10개 기관 수강생들과 지도교수가 참여했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사회



적 약자들에게 문학, 철학, 역사, 예술 등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인문학 강좌다. 경희대학교는 2008년부터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8개월간 263명이 참여해 214명이 수료했다. 강동지역 자활센터 문선 씨는 수료생들을 대표해 "강좌를 통해 진정한 꿈과 희망을 찾게 됐다"면서 "그동안 지식과 웃음을 함께 나눴던 분들과 작별하게 돼 아쉽지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얻은 것 같아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희 교육수월성 제고 워크숍'



'경희 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이 11월 28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학내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은하 교수는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의 자생적 스터디그룹 'Arete'를 소개했다. 'Arete'는 그리스어로 탁월성(Excellence)을 의미한다. 허승필(경영학과 11학번) 학생은 "Arete 활동이 전공과 취업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위대한 실용"이라고 표현했다.

두 번째 순서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유승현 직원이 '영어강의 맞춤형 교수·튜터·학생 연계 포트폴리오'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교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업을 준비할 수 있어 원활한 학생 지도가 가능하고, 학생은 복습과 보충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영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2012 미래문명원 콜로키움

2012 미래문명원 콜로키움이 지난 11월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경희대학교는 한국현대사연구원 설립을 앞두고, '인류 문명사적 시각에서 조명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콜로키움에서 학내의 석학들은 한국 현대사 연구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역사 연구에 앞서,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권기봉 평화복지대학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수정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많다"고 지적하고 "사실에 더 투철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 겸 경희대 석학교수(Eminent Scholar)는 "역사 자료 부족이 한국 현대사를 왜곡한 원인"이라며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 겸 경희대 석학교수(Eminent Scholar)는 "역사 자료 부족이 한국 현대사를 왜곡한 원인"이라며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제2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행사가 11월 6일 경희대학교 오비스홀 대회의실 151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서평 및 에세이 백일장, 2부 소설가 김형경(국어국문학과 78학번) 동문 초청 특강,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백일장에는 서평 부문 70명, 에세이 부문 130명 등 20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대상은 에세이 '돈과 자유, 청춘의 상관관계'를 쓴 정기린(경제학과 09학번) 학생에게 돌아갔다.

교직원연찬회 'Embrace 2012'

교직원연찬회 'Embrace 2012'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됐다.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서울·국제캠퍼스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찬회 주제는 '미래대학과 전문행정 - 성찰과 도전'이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교수,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패널은 21세기 대학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희가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정 전반의 과제에 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직원 개인과 행정조직 전체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대학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구성원이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해나갈 때 미래대학과 전문행정이 실현될 것이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소통을 통한 동기부여'가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됐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으로, 경희사랑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교내에 확산시키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은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과나 대학을 지정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격려하고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는 '훗날 선배가 되었을 때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헌

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소와 무의촌 진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참여 인원과 방법 및 기금 조성액 현황(2012년 11월 30일 현재)

2010년 10월 말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된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발족 2주 만에 1억 8,000여 만 원을 돌파했고, 2012년 11월 현재 23억여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조성 금액 : 2,300,923,606원
- 참여 인원 : 2,065명
- 참여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에서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협력처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 문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제 13호

지난 2월 18일,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스승' 미원 조영식 박사를 영원히 떠나보냈습니다. 조영식 박사는 평생 동안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경희를 이끌며, 허버드대학보다 더 멋진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경이로운 경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불굴의 도전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후학들에게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간실적인 행동'이라는 경희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며, 경희 구성원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학문과 평화의 담대한 비상'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경희의 송년회 Magnolia 2012는 그러한 의지와 열정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경희가 지난 1년 동안 이룩한 성취를 돌아보며,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함을 통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모색하는 Magnolia 2012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조영식 박사가 생전에 남긴 '개교 50주년, 100주년에 보내는 미래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캠퍼스 종합개 발사업 'Space 21'의 본격적인 추진 일정,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의 주요 내용도 소개합니다. 이밖에도, 경희의 특월성과 국내외적으로 높 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뉴스와 이슈를 담았습니다.

제13호 2012년 12월 21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 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ds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